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김 정 석**

한국 중년 남녀들의 무급노동을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를 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을 분석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간주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40대와 50대 중년층의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을 기술하는 한편, 이들의 가구, 개인,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중년층 여자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한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반면, 남자들은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 시간량에서는 남자들은 달리 여자들에게서 동거가구원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의 시간 또한 적음을 알 수 있다. 가족돌보기의 경우에는 가구특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달리, 여자들 중에서 유배우자들은 무배우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하는 비율이나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수발하거나 보살피는 것이 더 보편적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핵심용어: 중년, 일상생활, 시간사용, 무급노동, 가사노동,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 중년층들의 일상생활모습을 이들이 행하는 무급노동의 내용과 그에 사용되는 시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생애주기단계에서 중년층은 노년층에 접어드는 바로 전(前)단계이면서 자신, 노부모, 자녀 모두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가야 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의 중년층들은 사회적으로는 노년층 부양과 아동 및 청소년층 부양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가족생활에서는 자신의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여전히 돌보아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지고 있

* 이 논문은 2002년도 동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다. 따라서 중년층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무급노동은 자녀보육 및 노부모 부양의 요구가 많은 중년기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급노동은 성별 분업이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생활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가부장제적 전통이 오랜 한국 사회에서는 무급노동을 둘러싼 성불평등이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조사에 기초한 자료를 이용해 한국 중년층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급노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무급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그 시간량을 분석하는 데 있어 남녀간의 비교를 그 중심축에 놓고자 한다. 무급노동 자체가 대개의 경우 가사노동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남녀간의 무급노동 비교는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남녀간의 비교분석을 기본 시각으로 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무급노동행위와 시간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가구(household), 개인, 거주지역 및 요일에 따라 구분한다. 특히 가구요인의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무급노동의 시간량과 내용이 많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I. 자료와 표본분포

1. 자료와 변수

본 연구는 한국통계청이 1999년 9월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일부(예. 시군부 변수)를 개인식별번호에 따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각 개인에게 이틀간의 일상생활활동(시간일지)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 둘째날의 일상활동별 시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우선 이틀간의 활동별 시간량을 계산하는 데 따르는 분석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생활시간 조사 첫날보다 조사 둘째날의 시간일지작성이 보다 성실하다는 평가(손애리, 2000: 144)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조사 당시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남녀에 한정하였다. 또한 이들 연령층에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 1999년 생활시간조사의 조사개관과 기초보고서는 통계청(2000.12)을, 199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개관과 기초보고서는 통계청(2000.4)을 참조하기 바란다.

회박한 미혼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시간사용 연구에서 시간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이종화·이연숙,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전형적으로 네 가지 대범주—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시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손문금, 2003:5).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무급노동은 대체로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관리, 가정경영, 아이돌보기 및 그 외 가족보살피기, 쇼핑 등을 포함한 행동으로 이에 사용된 시간들을 무급노동시간이라 정의하고 있다.

무급노동에 대한 정의 안에서 이에 사용되는 시간과 활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또 다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한국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김정희(1993)의 연구에서는 무급노동을 행하는 기간과 빈도에 따라 매일하는 일과 주, 월, 연중에 몇 회 행하는 일로 나누는 한편, 영역별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영, 자녀돌보기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가사노동시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김선희(1989)의 연구와 국민경제에 대한 무보수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문숙재 등(2002)의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무보수가사노동을 영역별로 나누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최근의 연구(손문금, 2003)에서 제시된 시간분류틀을 적용해 무급노동을 크게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재화와 용역 구입으로 나누고 접근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무급노동의 내용을 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행동분류체계와 대조해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와 같이 무급노동은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재화와 용역 구입으로 구성되므로 각각의 무급노동 내용에 대한 분석은 중첩될 수 있다. 가령 재화와 용역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무급노동시간에서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제외한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무급노동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 보다는 주요한 무급노동이라 볼 수 있는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피기 행위와 그 시간에 집중하기로 한다.

〈표 1〉 무급노동의 행동분류표

무급노동(의무시간)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재화와 용역구입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421~424) 43 청소 및 정리 443 그 외 집관리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 499 기타 가사일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보살피기	441 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442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서비스 받기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출처: 손문금 (2003: 23)을 통계청 분류번호를 추가하여 보완.

무급노동 행위와 시간에 있어 중년층내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변수들은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보았다: 가구특성, 개인특성,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 우선, 가구특성에는 단독가구(분석대상 일인만이 가구형성)여부, 부부가구(결혼한 부부만이 가구형성)여부 이외에 가구내 특정연령의 가구원 숫자를 보여주는 3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연령의 가구원으로는 미취학연령(0-6세)아동, 취학연령(7-18세)아동, 70세 이상 노인을 고려하고 있다.

미취학연령이나 취학연령의 아동은 성인부모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년층의 무급노동 내용과 시간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구내 노인의 존재는 중년층의 무급노동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손자녀 양육이나 가사 분담을 통해 중년층의 무급노동을 경감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중년층이 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무급노동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중년층의 무급노동의 양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는 일상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신체활동제한이나 건강상태가 나쁠 것이라고 가정(假定)하였다. 따라서 가구내에 7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는 이들로 인해 중년층의 무급노동이 더 많을 것이라 간주하고 있다.

특정 가구원의 존재여부와 숫자로 파악되는 가구특성 이외에 본 연구에서 고려된 특성으로는 개인특성과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이 있다. 개인특성은 개인들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들로 이에에는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은 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시군부 여부, 조

사요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분석대상 특성과 분포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의 분포를 남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남자는 5680명, 여자는 6049명으로 각각 전체 11729 사례 중에 48.4%, 51.6%를 차지하고 있다.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들의 2.3%, 여자들의 4.1%에 그치고 있다.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약간 더 높으나 전체적으로 이 비율은 남녀모두에게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남자의 11.2%, 여자의 15.5%로 나타나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에 비해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사례들의 결혼 상태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40대와 50대 남녀가 유배우자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에만 거주하는 40대와 50대 연령층의 비율이 16.6%에 이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가족생활주기상의 빈 둥지(empty nest) 단계가 한국의 중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내 미취학연령(만6세까지)의 아동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중년층의 자녀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손자녀 혹은 기타 친인척일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밝혀둔다. 예컨대 59세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내에 존재하는 영아는 아마도 이 여성의 자녀라기보다는 손자녀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취학연령아동과 분석대상과의 가족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미취학연령아동의 존재가 함께 사는 중년층의 무급노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수에 따른 비율분포를 살펴보면 남녀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남녀전체로 보았을 때 미취학연령의 아동이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91.5%로 중년층의 대부분이 미취학아동연령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년층의 대부분이 아직 손자녀를 두지 않는 나이이며, 설령 손자녀를 둔다 하더라도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과 마찬가지로 가구내 취학연령의 아동들이 반드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중년층의 자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 성별 분석대상 특성과 분포

		남녀전체		남자		여자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합 계		100.0	11729	100.0	5680	100.0	6049
〈가구특성〉							
단독가구여부	아니오	96.8	11349	97.7	5551	95.9	5798
	예	3.2	380	2.3	129	4.1	251
부부가구여부	아니오	86.6	10153	88.8	5042	84.5	5111
	예	13.4	1576	11.2	638	15.5	938
가구내 미취학연령 (0-6세) 아동수	없음	91.5	10732	90.2	5124	92.7	5608
	1명	6.5	768	7.6	433	5.5	335
	2명이상	2.0	229	2.2	123	1.8	106
가구내 취학연령 (7-18세) 아동수	없음	50.6	5931	42.5	2416	58.1	3515
	1명	23.1	2710	24.6	1398	21.7	1312
	2명이상	26.3	3088	32.9	1866	20.2	1222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없음	88.1	10334	87.6	4974	88.6	5360
	1명	10.9	1277	11.3	641	10.5	636
	2명이상	1.0	118	1.1	65	0.9	53
〈개인특성〉							
연령	40대	58.3	6835	58.6	3329	58.0	3506
	50대	41.7	4894	41.4	2351	42.0	2543
배우자유무	무배우(사별, 이혼)	8.8	1028	3.9	223	13.3	805
	유배우	91.2	10701	96.1	5457	86.7	5244
교육수준	무학	3.5	413	1.2	67	5.7	346
	초등학교	25.8	3022	16.7	951	34.2	2071
	중학교	24.5	2873	21.0	1192	27.8	1681
	고등학교	33.6	3943	41.5	2356	26.2	1587
	전문대 이상	12.6	1478	19.6	1114	6.0	364
직업유무	있음	74.7	8759	88.3	5016	61.9	3743
	없음	25.3	2970	11.7	664	38.1	2306
직업 (유직업자내)	전문관리/준전문직/ 사무직	17.7	1161	25.3	996	7.4	165
	서비스/판매직	26.9	2571	16.5	1049	40.8	1522
	농림어업/단순노무직	55.5	5027	58.2	2971	51.8	2056
종사상지위 (유직업자내)	임금근로자	49.6	4345	52.8	2649	45.3	1696
	고용주/자영자	36.4	3186	45.9	2304	23.6	882
	무급가족종사자	14.0	1228	1.3	63	31.1	1165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							
거주지역	서울	12.2	1427	11.5	654	12.8	773
	경기	9.3	1095	9.6	545	9.1	550
	6대 광역시	34.3	4020	34.5	1962	34.0	2058
	기타 시도	44.2	5187	44.3	2519	44.1	2668
시군부	시부	73.8	8657	74.2	4216	73.4	4441
	군부	26.2	3072	25.8	1464	26.6	1608
조사요일 (조사돌짜날)	평일	59.6	6995	59.7	3388	59.6	3607
	토요일	20.9	2449	20.8	1180	21.0	1269
	일요일	19.4	2276	19.5	1107	19.3	1169

고 대부분의 가구들이 가족관계로 형성되는 경향에 비추어(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내 취학연령아동과 중년층은 주로 부모와 자녀관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가구내 취학연령 아동수별 남녀의 비율분포를 보면 가구내 취학연령의 아동이 없는 남자들의 비율은 42.4%, 이에 상응하는 여자들의 비율은 58.1%로 여자들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연령차로 인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서 그 자녀가 아직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년층과 함께 살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이들이 반드시 중년층의 부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족 중심으로 가구가 형성되는 경향에 비추어 이들 노인의 대다수가 중년층의 부모라고 간주된다. 주어진 분석대상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남자의 비율은 87.6%, 여자의 비율은 88.6%로 나타나, 남녀에 따른 별 차이 없이 대부분의 중년층이 70세 이상의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특성으로는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과 종사상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58.6%, 여자의 58.0%가 40대이고 그 나머지는 각각 50대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유무에서는 남녀별 차이가 제법 뚜렷한데, 남자들의 3.9%가 무배우자(사별이나 이혼)인데 비해 여자들의 무배우자 비율은 13.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남녀간 결혼상태의 차이는 중년층의 성별 사망률 차이로 인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재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남녀 간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남자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율은 1.2%, 초등학교 이하가 16.7% 중학교 이하가 21.0%이다. 이에 각각 상응하는 여자들의 비율은 5.7%, 34.2%, 27.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녀 간의 학력차이는 현재의 중년여성들이 과거에 남자들에 비해 학교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업유무는 조사 당시로부터 지난 1주일간 유급노동을 하였는가를 통해 측정되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에서도 남녀차이는 뚜렷한데 남자들의 88.3%가, 여자들의 61.9%가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간 차이는 직업이 있는 사람의 비율 뿐에서만 아니라 직업유형에 있어서도 뚜렷하다. 직업이

있는 남자들 중에서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17.7% 인 반면 직업이 있는 여자들 중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7.4%에 그치고 있다. 남녀간의 직업차이는 서비스/판매직에서도 발견되는데 직업이 남자들 중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6.9%, 직업이 있는 여자들 중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40.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종에서의 여자비율은 낮고 서비스와 판매직에서의 여자비율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사상 지위에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중년층 남자들의 45.9%가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인데 비해 여자들의 경우는 23.6%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남자들은 52.8%, 여자들은 45.3%로 역시 남자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남자들의 경우 1.3%에 그치지만 여자들은 31.1%에 육박하고 있다.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중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다. 남녀전체에서 거주지역이 서울인 비율은 12.2%, 경기도인 비율은 9.3%, 6대광역시인 비율은 34.2%, 기타 시도인 비율은 그 나머진 44.2%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부로 보았을 때 남녀전체 중년층의 73.8%가 시부에, 26.2%가 군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일지를 작성한 조사요일별로는 평일이 59.6%, 토요일이 20.9%, 일요일이 19.4%인 것으로 나타난다.

Ⅲ. 무급노동에 대한 기초분석

본 장에서는 무급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가구특성, 개인특성,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집계표(集計表)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다음의 <표 3>은 가사노동의 시간량과 행위자비율을 가구특성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단독가구 거주여부별로 우선 살펴보면 단독가구에 사는 남자들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75.2%이고 이들이 무급노동에 쓰는 평균시간은 81.8분으로 나타나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남자들의 무급노동 행위자 비율(34.2%)보다 높고 이들의 행위자 평균시간(50.7분)보다 더 많다. 이는 단독가구에 사는

중년층 남자들이 의식주를 비롯한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들의 경우는 단독가구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무급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모두가 남자들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들을 비교해 보면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무급노동 행위자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또한 무급활동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평균시간량(140.8분)이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여자들의 평균시간량(208.2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단독가구 거주여부에 따른 남자들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의 차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남자들이 단독가구에 살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그 시간량도 많아지는 반면, 여자들이 단독가구에 거주하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 때보다도 무급노동에 쓰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가구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남녀전체		남자		여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단독가구여부						
아니오	71.9	195.9	44.2	68.6	98.4	250.6
예	90.0	144.1	78.3	88.7	96.0	167.3
부부가구여부						
아니오	71.5	195.4	44.4	69.4	98.2	251.6
예	78.9	184.4	49.7	69.7	98.8	223.6
가구내 미취학연령(0-6세) 아동수						
없음	72.6	191.6	44.1	68.8	98.6	241.8
1명	70.2	220.1	50.8	77.1	95.2	318.7
2명이상	76.4	211.8	60.2	67.0	95.3	317.9
가구내 취학연령(7-18세) 아동수						
없음	78.4	193.2	50.0	71.9	98.0	235.7
1명	69.7	193.6	42.4	71.4	98.8	249.5
2명이상	63.6	195.5	40.5	63.9	98.9	277.7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없음	72.5	194.7	44.6	70.0	98.3	247.2
1명	72.4	189.1	46.8	67.2	98.3	247.7
2명이상	74.6	168.6	55.4	55.8	98.1	246.7

부부가구 거주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남녀 별로 살펴보면,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2.9%로 부부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비율(34.2%)보다 높게 나타난다.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남들과 그렇지 않은 남자들 간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는 부부가구 거주여부에 따른 행위자 비율의 차이는 매우 적으며,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여자들의 시간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의 시간보다 약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수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차이는 남녀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남자들에 있어서 가구내 미취학연령의 아동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으며 행위자 평균시간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사하게 여자들에 있어서도 미취학연령 아동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어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내에 미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다고 해서 중년층 남녀의 가사노동 행위자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아마도 미취학연령아동의 대부분이 중년층의 손자녀이며, 미취학연령아동의 어머니가 같은 집에 살면서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하기 때문에 중년층 자신들의 가사노동 참여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오히려 감소시켜 주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가구내 취학연령아동수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차이는 남자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미취학연령아동수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내 취학연령의 아동이 많을수록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어느 정도 감소한다. 이에 비해 여자들의 경우는 가구내 취학연령의 아동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미취학연령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중년층 남녀모두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줄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은 대체로 중년층 자신들의 자녀이고 중년층을 대신해서 가사노동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황에서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중년층 여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자들의 경우 아직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과 그 시간이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수에 따른 남녀간 차이는 행위자 평균시간에서 제법 뚜렷하다. 남자들의 경우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이 약간 더 높은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다소 감소한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약간 감소하는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조금 증가한다. 이는 가구내에 노인이 있으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간 증가하지만 이들의 평균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 이어 개인특성별로 가사노동 시간량과 행위자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연령별로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의 남녀간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남자들 중에서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40대에서 31.1%, 50대에서 40.9%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도 40대에서 48.5분, 50대에서 56.1분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평균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남자들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가사노동 참여 비율과 시간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자들에게서는 연령별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 4> 개인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량과 행위자비율

	남녀전체		남자		여자	
	행위자 비율(%)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시간
연령						
40대	71.2	194.2	42.2	65.1	98.8	246.6
50대	74.3	193.2	48.9	74.8	97.7	248.0
배우자유무						
무배우(사별, 이혼)	89.9	167.0	68.6	102.0	95.8	179.9
유배우	70.8	197.1	44.0	67.4	98.7	257.2
교육수준						
무학	89.3	207.8	41.8	69.6	98.6	219.1
초등학교	81.7	204.5	46.5	73.8	97.8	233.0
중학교	77.1	197.9	46.6	64.9	98.6	242.5
고등학교	66.0	189.6	44.1	68.1	98.6	270.2
전문대 이상	57.4	158.7	44.1	73.5	98.1	276.0
직업유무						
있음	66.1	147.8	42.4	62.9	98.0	196.9
없음	91.2	292.2	64.8	101.6	98.8	328.2
직업(유직업자내)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	47.8	103.3	39.7	64.1	97.0	200.2
서비스/판매직	75.8	156.7	44.2	60.2	97.5	186.9
농림어업/단순노무직	65.4	150.0	42.6	63.6	98.4	204.0
종사상지위(유직업자내)						
임금근로자	63.2	134.7	41.1	62.9	97.8	181.9
고용주/자영자	58.3	119.7	43.4	62.7	97.2	186.1
무급가족종사자	96.7	221.9	55.6	70.3	99.0	226.5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분포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에 있어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무배우자의 63.2%, 유배우자의 34.0%로 무배우자 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훨씬 낮다. 또한 가사노동 행위를 하는 남성들내에서도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량이 무배우자 91.9분, 유배우자 49.2분으로 역시 유배우자의 가사노동 행위자시간이 무배우자의 시간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도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량은 무배우자 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배우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유배우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비율보다 약간 낮은 94.7%이지만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유배우 여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150.4분에 머문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자들의 경우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여자들의 경우 유배우보다는 무배우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남편보다는 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편이 없는 경우는 여자들의 가사노동이 줄어들지만 부인이 없으면 남자들의 가사노동은 늘어남을 의미한다.

교육수준별 남성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대체로 학력이 높은 남자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성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중학교 학력의 남성들에게서 다소 적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들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여자들의 가사노동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이 약간씩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중년층 여성들 중에서 고학력자는 전업주부가 많고 저학력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앞서 살펴본 사례분포에서 직업을 가진 여자들의 비율은 38.1%에 머물고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저학력 중심의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유무에 따른 남성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직업이 없는 남자의 경우 56.8%, 직업이 있는 남성들의 경우 32.3%로 나타난다. 한편 남성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직업이 없는 남자의 경우 76.6분, 직업이 있는 남자의 경우 46.4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남성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직업유무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자들의 경우 직업유무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역시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남녀 간 차이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여자들의 경우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이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자들의 경우는 직업유무에 따른 행위자 비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자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을 가진 남자들 중에서 직업별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 종사자들에게서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직업을 가진 여자들 중에서도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 종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이 다른 직종의 여성 종사자들에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95.8%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들과는 달리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 종사자 혹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보다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에게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41.3%로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 고용주나 자영업자에게서는 낮게 나타난다. 또한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도 무급가족종사자들이 59.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 많은 시간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에 있어서도 96.3%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의 시간이 196.8분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다.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별 가사노동 시간량과 행위자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거주지역별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서울지역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비율이 가장 낮은 29.1%이며, 서울, 경기, 6대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지역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이 가장 높은 38.0%로 나타난다. 지역별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차이는 서울, 경기, 6대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지역에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지역별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50분-55분 사이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량과 행위자비율

	남녀전체		남 자		여 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거주지역						
서울	70.7	208.4	38.7	70.4	97.8	254.6
경기	71.8	187.7	45.1	65.6	98.2	243.3
6대 광역시	71.5	201.9	43.7	69.4	98.0	258.2
기타 시도	73.9	185.1	47.6	70.0	98.7	237.5
시군부						
시부	71.7	199.6	43.8	69.2	98.3	254.7
군부	74.6	178.1	48.4	70.1	98.4	226.6
조사요일(조사돌때날)						
평일	72.0	193.4	43.9	65.4	98.5	247.0
토요일	72.4	198.7	44.7	68.5	98.0	254.0
일요일	74.3	189.8	48.9	81.4	98.5	240.7

시군부에 따른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시부거주남자의 경우 33.8%, 군부거주남자의 경우 38.9%로 시부보다는 군부에 거주하는 남성들에게서 높고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거주지역별 차이에서 설명되었듯이 농림어업직 무급가족종사자 남성들이 군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시군부에 따른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부별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시부보다는 군부 거주여성들에게서 12.4분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군부의 행위자 평균시간량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조사요일별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다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평일(34.5%)이나 토요일(33.5%)보다 일요일(39.2%)에 더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행위자 평균시간도 일요일에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여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량은 평일과 주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가족돌보기는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그 외 가족들에 대한 돌보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 행위와 그에 따른 시간은 해당 가족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된다. 다음의 <표 6>은 가구특성별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남녀에 관계없이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중년층에 비해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가구특성에 따른 가족돌보기 시간량과 행위자 비율

	남녀전체		남자		여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단독가구여부						
아니오	23.6	63.5	9.2	61.0	37.3	64.1
예	5.5	141.9	1.6	75.0	7.6	148.9
부부가구여부						
아니오	24.4	63.5	9.4	61.8	39.3	63.9
예	13.5	71.1	6.4	52.7	18.3	75.5
가구내 미취학연령(0-6세) 아동수						
없음	20.6	54.1	6.8	57.5	33.2	53.5
1명	47.4	104.1	27.7	68.9	72.8	121.4
2명이상	53.7	125.3	38.2	67.4	71.7	161.1
가구내 취학연령(7-18세) 아동수						
없음	17.6	83.3	7.9	72.4	24.3	85.7
1명	28.1	53.6	9.9	59.0	47.4	52.3
2명이상	28.8	50.6	9.9	50.9	57.7	50.6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없음	23.0	65.1	8.8	62.6	36.1	65.6
1명	23.3	57.8	10.3	53.2	36.3	59.1
2명이상	19.5	47.8	13.8	43.3	26.4	50.7

단독가구 거주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다. 이는 단독가구에 거주하더라도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원(자녀 혹은 손자녀 등)을 보살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단독가구 거주자들 중에서 별거하고 있는 가족원을 보살피는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가구에 사는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중년층에 비해 가족돌보기를 하는 비율은 낮지만 이들이 가족돌보기를 하는 평균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단독가구 거주 여자들의 경우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은 148.9분으로 단독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여자들보다 그 평균시간이 84.8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독가구 거주 중년층에 비해 부부가구 거주 중년층이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구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구 여부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의 차이는 단독가구 여부에 따른 양상과 어느 정도 흡사하다. 즉,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중년층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그렇지 않은 중년층에 비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부가구 여부별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이 낮은 동시에 행위자 평균시간도 적게 나타난다. 반면,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10여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수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에 비해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행위자 비율도 증가한다. 그러나 남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여자들은 가구내 미취학연령의 아동이 있으면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70%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도 아동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의 존재는 남녀모두에게서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증가하지만 이로 인한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는 여자들에게서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육과 보살핌이 많이 요구되는 미취학연령 아동이 중년층 남녀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된다.

가구내 취학연령 아동수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남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구내 취학연령아동이 있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에 비해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녀모두에게서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으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교나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돌보는 행위자 비율은 높아지

더라도 실제 돌보는 시간은 작은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수별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 또한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들의 경우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이 많을수록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증가하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감소한다. 이에 비해 여자들은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오히려 낮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은 여자들이 부부노인(노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특성별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량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남녀모두에게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40대와 50대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별 남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에게서 약간 더 높으며, 행위자 평균시간 또한 유배우자들에게서 23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높는데 그 차이가 남자들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은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에게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별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게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의 차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남자들의 경우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자들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위자 평균시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역시 직업이 없는 남녀가 직업이 있는 남녀보다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직업이 있는 남녀의 경우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서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표 7> 가구특성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

	남녀전체		남자		여자	
	행위자 비율(%)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평균시간
연령						
40대	26.9	52.4	10.1	54.3	42.8	52.0
50대	17.6	89.2	7.5	73.8	26.8	93.2
배우자유무						
무배우(사별, 이혼)	19.5	71.9	8.5	38.9	22.5	75.4
유배우	23.3	63.5	9.1	61.9	38.2	63.9
교육수준						
무학	19.6	100.6	---	---	23.4	100.6
초등학교	21.5	77.5	7.5	66.5	28.0	78.8
중학교	24.2	59.5	8.0	59.3	35.8	59.5
고등학교	24.3	57.0	9.0	61.2	47.0	55.8
전문대 이상	20.8	58.9	12.0	59.3	47.8	58.6
직업유무						
있음	17.0	51.4	8.4	55.3	28.5	49.9
없음	40.6	79.8	13.7	87.9	48.4	79.1
직업(유직업자내)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	14.7	53.6	10.4	57.2	40.6	47.9
서비스/판매직	21.7	47.3	9.5	53.6	30.1	45.9
농림어업/단순노무직	15.1	54.0	7.3	55.1	26.4	53.6
종사상지위(유직업자내)						
임금근로자	16.7	45.7	8.5	54.8	29.6	41.7
고용주/자영자	13.9	52.7	8.3	55.9	28.5	50.2
무급가족종사자	26.1	62.7	9.5	55.0	27.0	62.9

직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업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전문관리/준전문직/사무직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고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남녀모두에게서 발견된다. 한편, 직종에 따라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의 차이는 남녀모두에게서 뚜렷하지 않다. 다만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는 고용주나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주나 자영업자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에 이어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남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자들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평균시간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여자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8〉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가족돌보기 시간량과 행위자 비율

	남녀전체		남자		여자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거주지역						
서울	25.4	59.2	7.6	54.0	40.4	60.0
경기	23.7	59.7	9.9	50.0	37.3	62.3
6대 광역시	25.0	64.7	8.5	66.1	40.6	64.4
기타 시도	20.6	66.4	9.6	61.5	31.1	67.8
시군부						
시부	24.8	63.1	9.0	60.8	39.9	63.6
군부	17.8	68.0	9.2	61.9	25.6	70.1
조사요일(조사돌짜날)						
평일	24.2	63.6	9.3	59.1	38.2	64.6
토요일	24.4	57.7	8.5	47.8	39.2	59.6
일요일	17.7	76.2	8.8	81.1	26.1	74.6

거주지역에 비해 시군부별 가족돌보기 시간량과 행위자 비율은 다소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남자들의 경우 시구분에 관계없이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은 일정하다. 이에 비해 여자들은 군부거주자 보다 시부거주자들에게서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군부에 거주하는 여자들이 대다수 농림어업에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반면 시부의 여자들은 전업주부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요일별 남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요일에 남자들의 행위자 평균시간이 평일이나 토요일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발견된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돌보기 행위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행위자 평균시간은 일요일에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무급노동에 대한 다원분석

본 장에서는 무급노동을 구성하는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 대한 다원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앞서 기초분석에서 반복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세 가지 특성과 이들 특성을 보여주는 개별변수들은 서로 중첩적으로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원통계모형분석은 어떤 변수가 보다 긴밀하게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원적인 통계모형분석을 실시하는 본 장에서는 기초분석에서 사용된 직업 변수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직종과 종사상지위는 제외토록 하고 직업유무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원통계모형에서는 서울, 경기도 등으로 구성된 거주지역변수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시군부 여부와 상당 수준 대체가능하리라는 이유에서이다. 본 장에서는 통계모형에서 설정된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일반회귀모형을 사용하고 변수들의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 가사노동에 대한 통계모형분석

다음의 <표 9>는 가사노동 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의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가사노동 행위 여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녀전체에 대한 통계모형에서 성이 차지하는 계수값이 4.314라는 점에 근거한다. 즉 다른 변수들이 동일한 조건일 때 여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은 남자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남녀별로 가구특성, 개인특성,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가사노동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남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남자들에게서 유의미한 가구특성으로는 단독가구여부,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수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단독가구여부는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13.9분 정도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이 많을수록 남자들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미취학연령아동의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표 9〉 남자와 여자의 가사노동 행위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남녀전체		남자		여자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290	0.189	0.800	0.205	3.999	0.458
성 (0=남성, 1=여성)	4.314 ***	0.099	-	-	-	-
〈가구특성〉						
단독가구여부 (0=단독가구아님, 1=단독가구)	1.220 ***	0.201	1.484 ***	0.223	-0.449	0.353
부부가구여부 (0=부부가구아님, 1=부부가구)	0.254 ***	0.093	0.275 ***	0.098	0.003	0.333
가구내 미취학연령(0-6세) 아동수	-0.144 *	0.076	0.025	0.078	-0.872 ***	0.167
가구내 취학연령(7-18세) 아동수	-0.043	0.043	-0.027	0.045	0.131	0.163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0.083	0.074	0.077	0.077	-0.276	0.263
〈개인특성〉						
연령 (0=40대, 1=50대)	0.130 *	0.069	0.254 ***	0.074	-0.362	0.230
배우자유무 (0=무배우, 1=유배우)	-0.161	0.138	-0.773 ***	0.157	1.007 ***	0.232
교육수준	-0.023	0.029	-0.028	0.030	-0.053	0.101
직업유무 (0=없음, 1=있음)	-0.933 ***	0.081	-0.935 ***	0.087	-0.662 ***	0.216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						
시군부 (0=시부, 1=군부)	0.214 ***	0.066	0.192 ***	0.069	0.451 *	0.242
토요일	-0.041	0.070	-0.019	0.074	-0.249	0.225
일요일	0.158 **	0.070	0.183 **	0.074	-0.095	0.244

* p<0.1, ** p<0.05, *** p<0.01

교육수준은 5단계 연속변수로 처리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이상)

미취학연령 아동수, 취학연령 아동수, 70세 이상 노인수는 연속변수로 처리 (0=없음, 1=1명, 2=2명이상)

우선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은 단독가구여부, 부부가구여부,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시군부, 요일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는 남자들보다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0대 남자보다는 50대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무배우 남자에 비해 유배우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낮다. 직업에 있어서는 직업이 있는 남자들이 직업이 없는 남자들보다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더 낮다.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의 변수들은 남자들에게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부에 거주하는 남자에 비해 군부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요일변수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지만 일요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평일보

다 일요일에 더 높음을 의미한다.

여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의 차이를 가구특성, 개인특성,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들의 패턴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단독가구 여부변수와 부부가구 여부변수는 여자들에게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수는 여자들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미취학연령 아동의 존재는 그들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들이 중년층 여성을 대신해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들에게서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들에게서 발견되었던 효과와는 다르다. 남자들의 경우 유배우자들이 무배우자들에 비해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낮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배우 남자들의 경우 아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사노동을 하지만 아내가 있을 경우에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시군부여부에 따른 효과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군부 거주 여자들이 시부 거주 여자들보다 가사노동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자들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른 가사노동 행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자들이 주말과 평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가사노동 행위자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가구특성, 개인특성,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의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사노동 행위자들내에서도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행위자 평균시간은 143.9분(남녀전체모형에서의 $b=143.875^{***}$)에 이른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과 더불어 행위자들의 시간 또한 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가사노동을 하는 남자와 여자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남녀전체		남자		여자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55.985	7.010	93.189	7.248	197.239	7.469
성 (0=남성, 1=여성)	143.875 ***	2.729	-	-	-	-
〈가구특성〉						
단독가구여부 (0=단독가구아님, 1=단독가구)	-10.536 *	6.140	13.921 **	6.241	-29.212 ***	7.984
부부가구여부 (0=부부가구아님, 1=부부가구)	-10.815 ***	3.461	-1.430	3.886	-14.740 ***	4.333
가구내 미취학연령(0-6세) 아동수	-10.121 ***	3.243	-8.272 **	3.273	-12.596 ***	4.247
가구내 취학연령(7-18세) 아동수	9.948 ***	1.724	0.345	1.869	13.463 ***	2.192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3.866	3.125	-1.442	3.163	6.109	4.048
〈개인특성〉						
연령 (0=40대, 1=50대)	9.598 ***	2.716	5.756 *	2.939	13.415 ***	3.472
배우자유무 (0=무배우, 1=유배우)	38.952 ***	3.902	-34.209 ***	5.066	48.290 ***	4.758
교육수준	2.819 **	1.205	1.702	1.232	2.176	1.564
직업유무 (0=없음, 1=있음)	-81.134 ***	2.460	-26.425 ***	3.100	-92.084 ***	3.018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						
시군부 (0=시부, 1=군부)	15.173 ***	2.729	3.972	2.816	19.886 ***	3.506
토요일	5.691 **	2.809	4.536	3.072	5.396	3.539
일요일	2.526	2.846	8.087 ***	2.968	-0.409	3.646

* p<0.1, ** p<0.05, *** p<0.01

교육수준은 5단계 연속변수로 처리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이상)

미취학연령 아동수, 취학연령 아동수, 70세 이상 노인수는 연속변수로 처리 (0=없음, 1=1명, 2=2명이상)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등이 가사노동 시간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배우 남자보다는 유배우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적다는 점은 아내들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며 아내가 없을 때 남자들은 가사노동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평일에 대비한 일요일로 남자들은 일요일에 가사노동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들의 가사노동 시간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가구특성으로는 단독가구여부, 부부가구여부, 가구내 미취학연령아동수, 가구내 취학연령아동수이다. 따라서 여자들의 경우,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수를 제외한 모든 가구특성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단독가구나 부부가구에 거주할수록 적으며, 가구내 취학연령 아동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수는 중년층 여자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있다.

여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특성에는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등이 있다. 특히 배우자 유무는 남자들과는 달리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이 48.3($b=48.290^{***}$)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직업의 영향은 직업이 없는 여자들(전업주부)에 비해 직업이 있는 여자들이 가사노동에 시간을 덜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서는 시부에 거주하는 여자들에 비해 군부에 거주하는 여자들이 가사노동에 시간을 더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일변수에서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요일에 관계없음을 보여준다.

2. 가족돌보기에 대한 통계모형분석

다음의 <표 11>은 가족돌보기 행위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이다. 남녀전체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은 성에 따라($b=2.079^{***}$)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특성 변수로단독가구여부,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수, 가구내 취학연령 아동수,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가구에 사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에 비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낮다. 또한 가구내 미취학연령이나 취학연령의 아동,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이 많을수록 남자들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은 높다.

남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개인특성으로는 교육수준과 직업유무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직업이 없는 남자들에 비해 직업이 있는 남자들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은 낮다. 거주특성으로는 시군부 여부가 다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부거주 남자보다 군부거주 남자들이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다.

여자들이 가족돌보기를 하는 데 유의미한 가구특성 변수는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즉 단독가구여부, 부부가구여부,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수, 가구내 취학연령아동수이다. 부부가구 여부변수는 남자들에게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변수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남자와 여자의 가족돌보기 행위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남녀전체		남자		여자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3.136	0.170	-2.807	0.348	-1.007	0.161
성 (0=남성, 1=여성)	2.079 ***	0.066	-	-	-	-
<가구특성>						
단독가구여부 (0=단독가구가아님, 1=단독가구)	-1.200 ***	0.241	-1.411 *	0.730	-1.100 ***	0.256
부부가구여부 (0=부부가구가아님, 1=부부가구)	-0.308 ***	0.091	0.178	0.192	-0.377 ***	0.101
가구내 미취학연령(0-6세) 아동수	1.392 ***	0.064	1.362 ***	0.089	1.466 ***	0.098
가구내 취학연령(7-18세) 아동수	0.530 ***	0.039	0.251 ***	0.075	0.664 ***	0.046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0.082	0.070	0.280 **	0.122	-0.014	0.085
<개인특성>						
연령 (0=40대, 1=50대)	-0.088	0.065	0.112	0.128	-0.162 **	0.076
배우자유무 (0=무배우, 1=유배우)	0.386 ***	0.098	-0.208	0.265	0.463 ***	0.106
교육수준	0.129 ***	0.028	0.190 ***	0.053	0.090 ***	0.033
직업유무 (0=없음, 1=있음)	-0.862 ***	0.056	-0.749 ***	0.134	-0.871 ***	0.064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						
시군부 (0=시부, 1=군부)	-0.112 *	0.065	0.203 *	0.117	-0.252 ***	0.078
토요일	-0.003	0.063	-0.151	0.125	0.048	0.074
일요일	-0.480 ***	0.070	-0.024	0.126	-0.669 ***	0.083

p<0.1 *, p<0.05 **, p<0.01 ***

교육수준은 5단계 연속변수로 처리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이상)

미취학연령 아동수, 취학연령 아동수, 70세 이상 노인수는 연속변수로 처리 (0=없음, 1=1명, 2=2명이상)

여자들의 가족돌보기는 이들의 개인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과 비교해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으로 여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배우자 유무는 남자들에서도 유의미한 변수이었지만 배우자 유무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유배우 여자들은 무배우 여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의 영향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무직업자에 비해 유직업자에서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역 특성으로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시군부와 요일변수가 해당된다. 시군부 변수는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시부거주 여자보다는 군부거주 여자들에게서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요일변수의 영향은 남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자들은 평일보다는 일

요일에 가족돌보기를 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 12>는 가족돌보기 행위를 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행위자 평균시간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남자들이 가족돌보기에 쓰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업유무와 요일변수가 두드러진다. 직업이 있는 남자들은 직업이 없는 남자들에 비해 가족돌보기에 쓰는 시간이 30여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b=-30.190^{***}$). 또한 남자들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20여분 정도 더 가족돌보기에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b=20.372^{***}$). 이 외에도 남자들에게서는 부부가구여부와 가구내 70세 이상 노인수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가구여부의 경우,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가족돌보기에 시간을 적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 가족돌보기를 하는 남자와 여자의 가족돌보기 시간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p<0.1$ *, $p<0.05$ **, $p<0.01$ ***

교육수준은 5단계 연속변수로 처리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이상)

미취학연령 아동수, 취학연령 아동수, 70세 이상 노인수는 연속변수로 처리 (0=없음, 1=1명, 2=2명이상)

	남녀전체		남자		여자	
	비표준화	표준	비표준화	표준	비표준화	표준
	회귀계수	오차	회귀계수	오차	회귀계수	오차
상수	48.588	10.786	54.866	23.617	47.487	9.861
성 (0=남성, 1=여성)	5.182	4.329	-	-	-	-
<가구특성>						
단독가구여부 (0=단독가구가님, 1=단독가구)	84.617 ***	17.924	7.999	52.993	96.209 ***	19.068
부부가구여부 (0=부부가구가님, 1=부부가구)	6.835 **	6.212	-23.233 *	13.693	13.135 *	6.892
가구내 미취학연령 (0-6세) 아동수	42.024 ***	3.182	5.698	5.727	57.178 ***	3.878
가구내 취학연령 (7-18세) 아동수	1.692	2.400	-6.239	5.194	1.507	2.693
가구내 70세이상 노인수	-2.878	4.365	-13.855 *	8.027	1.166	5.098
<개인특성>						
연령 (0=40대, 1=50대)	28.636 ***	4.257	14.002	8.836	27.677 ***	4.855
배우자유무 (0=무배우, 1=유배우)	12.651 **	6.166	25.066	17.799	16.267 **	6.644
교육수준	-2.168	1.731	1.415	3.617	-2.118	1.956
직업유무 (0=없음, 1=있음)	-27.123 ***	3.309	-30.190 ***	8.982	-25.628 ***	3.569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						
시군부 (0=시부, 1=군부)	3.637	4.087	9.706	7.893	-0.511	4.715
토요일	-5.671	3.778	-9.361	8.548	-4.722	4.176
일요일	7.982 *	4.424	20.372 **	8.553	2.876	5.071

가족돌보기 시간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성들에게서는 적고 유의수준도 낮은 반면, 여성들에게서는 변수가 많고 유의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가족돌보기 시간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변수로는 단독가구여부, 부부가구여부, 가구내 미취학연령 아동수 등이 있다.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가족돌보기에 쓰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홀로 사는 여성들이 별거하고 있는 자녀나 손자녀를 보살피는 데 시간을 쓰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여성들에 있어 부부가구여부의 영향은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와는 달리 부부가구에 사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가족돌보기에 시간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가족돌보기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등을 들 수 있다. 40대 여자들보다 50대 여자들이 가족돌보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으며, 무배우자 보다는 유배우자들이 가족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직업유무에서는 역시 직업이 있는 여성들이 직업이

없는 여자들보다 가족돌보기에 시간을 적게 쓰고 있다. 한편, 여자들에 있어서는 시군부와 요일특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들에게서 발견되었던 요일효과가 여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점은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시간량은 주말과 평일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Ⅷ. 요약 및 정리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1999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해 한국 중년층의 무급노동 행위자비율과 그 평균시간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무급노동은 크게 가사노동, 가족돌보기, 재화 및 용역의 구입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중에서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가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급노동활동을 하는 비율은 남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무급노동을 하는데 비해 무급노동을 하는 남자들은 절반에 이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급노동의 내용에 따라 남녀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행위자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행위자 평균시간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보기의 경우 가사노동에 비해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남녀 모두에게서 낮지만 성별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사노동 행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여자들의 경우 가구특성, 개인특성,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 여자들은 이들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 가사노동을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남자들의 가사노동 행위는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등의 개인특성과 시군부 거주여부와 요일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들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행위자들의 평균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또한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단독가구여부, 부부가구여부, 가구내 취학연령 아동수 등으로 구성된 가구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적을수록 여자들이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년층 여자들이 미취학연령아동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아

동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과는 달리 가족돌보기 행위여부에 대해서는 남녀모두 가구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보기 행위의 한 전제 조건이 가구내 가족의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자들의 가족돌보기 행위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자들과는 달리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족돌보기 행위가 더 많다는 점으로 이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현상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돌보기에 사용하는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자들의 경우 가구특성, 개인특성이 남자들의 경우는 요일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권태환·박영진(1995), '가구구조와 가족형태',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편, 《한국의 인구나와 가족》 일신사, 239-365쪽.
- 김선희(1999),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11-127.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2.
- 문숙재·윤소영·김은희(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7.
- 손문금(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연구》 8(2): 1-25.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이중희·이연숙(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통계청(2000. 12),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_____ (2000. 4), 《경제활동인구연보》